

문학 토론문

「2010년 이후 한중 문학에서 드러난 식물성 의미 연구」

동천(董晨) / 중국사회과학원

송향경 선생님의 글은 전체적으로 20세기 후반 서구에서 등장한 ‘생태비평’(ecocriticism)의 문제의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생태비평’은 서구 모더니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대 문명의 인간중심주의 및 인간과 자연의 이원 대립적 사고방식을 성찰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생태이론의 기본 법칙으로 삼았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송향경 선생님은 인류사회의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아라이(阿来) 작가의 「버섯군락」(蘑菇圈, Fairy Ring)과 김초엽 작가의 「지구 끝의 온실」을 통해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성찰하고 생태정신이 내재된 새로운 문명의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송향경 선생님의 글은 사회 현실 문제와 인류 운명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현실 문제에 대한 지식인의 관심을 보여주었고, 바로 그 점으로 인해 이 글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송 선생님이 글에서 다룬 ‘식물성’의 문제와 글에 언급된 두 편의 소설 작품에 대해 제가 본격적으로 연구한 바가 없으므로 문외한의 입장에서 3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니 송선생님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글에서 ‘인본주의’, ‘인간중심성’, ‘식물성’ 등 다양한 개념 또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명확한 정의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식물성이 무엇인지, 그것과 ‘인간중심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은 단어만으로 의미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개념 또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으며 이들 개념 간의 관계를 명확히 밝힌다면 글의 논리가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글에서 소설 두 편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 아라이의 소설 「버섯군락」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소제목에 ‘탈역사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또한 ‘탈역사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에서는 각주에서 해당 용어가 왕후이(汪晖) 선생님의 『탈정치시대의 정치』라는 책에서 빌려왔다고 언급할 뿐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또한 글 본문에서 “쓰중과 버섯을 다른 축으로 볼 때, 역사의 시간 안으로 휘말려든 쓰중은 버섯으로 하여 ‘탈역사적인’ 순간들을 경험한다”라고 하였는데, 선행문과 후행문을 살펴볼 때 여기서 사용한 ‘탈역사적’을 역사적 사건의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만약 본문에서 ‘탈역사’의 의미를 먼저 정의 내린 후 「버섯군락」이 어떤



의미에서 ‘탈역사화’를 시도하고 실패했는지를 논증한다면 글의 논의가 더 분명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일부 문장의 표현을 약간 수정한다면 글이 더욱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 중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글 첫 단락의 “우리는 날로 진화하는 감수성이 있는 AI 로봇들을 매체를 통해서 만나보는 과정에 인간은 유일한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 인수공통감염병인 코로나를 통하여 여러 종(種)들과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 생태계 안의 일원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체감하였다”에서 “전지전능”은 일반적으로 하느님 또는 신을 나타내고 인간은 전지전능한 존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송선생님께서 해당 문장을 통해 드러내시려는 의미를 ‘코로나19를 계기로 인간이 생태계에서 유아독존적 존재가 아니라 다른 종들과 평등한 구성원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